

소득 불평등에 대한 주관적 평가: 미국 사회를 중심으로*

이 현 송 |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통번역학부 교수

본 연구는 소득 불평등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이루어지는 내적인 과정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소득 불평등의 인식을 구성하는 세 요소로 구분하였다. '소득 불평등의 현 수준', '정당한 소득 불평등의 수준', '소득 불평등의 주관적 평가가 그것이다. 소득 불평등의 주관적 평가는 '소득 불평등의 현 수준'과 '정당한 소득 불평등 수준'의 대비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였다. 즉 한 사람이 인식하는 '소득 불평등의 현 수준'이 그가 생각하는 '정당한 소득 불평등 수준'보다 크게 높을 경우 현재의 '소득 불평등이 지나치게 크다고 평가할 것이며, 반대의 경우 소득 불평등이 지나치게 크지 않다고 평가할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분석을 통해 지지되었다. 한편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소득 불평등의 현 수준'을 높게 인식하며, '정당한 소득 불평등 수준' 또한 높게 설정한다. 본 연구의 불평등 인식 모델을 적용하여 부자와 빈자의 소득 불평등 인식을 비교해 본 결과, 부자들이 현재의 소득 불평등 수준이 높다고 인식함에도 소득 불평등에 대해 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그들이 생각하는 정당한 소득 불평등 수준이 다른 사람들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제어: 소득 불평등, 불평등 인식, 불평등 태도, 분배 정의, 소득 격차

* 본 연구는 2016년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I. 서론

1980년대 이래 미국에서 소득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소득 불평등 문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근래에 다수의 미국인들은 미국 사회에서 부자와 빈자 사이에 소득의 격차가 크다고 생각하며, 그중 일부는 이러한 불평등이 지나치다고 본다.¹ 그러나 소득 불평등의 규모에 대한 인식과 소득 불평등이 지나치게 크지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소득 불평등 규모가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소득 불평등에 대해 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인들은 소득 불평등이 어느 정도가 되면 지나치다고 생각할까? 본 연구에서는 ‘소득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라는 주관적인 평가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는지 탐색한다. 이러한 평가가 이루어지려면 소득 불평등의 현 수준에 관한 인식과 함께 소득 불평등에 대한 규범적 기준의 설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소득 불평등의 현 수준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불평등한 소득 분포에 변화를 요구하는 의견과 행동으로 발전할 것이다. 현재의 소득 불평등 수준이 정당한 보상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생각하면, 이를 시정하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 불평등 인식과 관련하여 현 수준 인식, 규범적 기준 설정, 주관적 평가라는 세 가지가 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소득 불평등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결정하는 개념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소득 불평등 인식의 형성 과정에 대한 개념 모델을 바탕으로 하여 소득 불평등의 현재의 수준 및 정당한 불평등의 정도에 대한 객관적 측정을 통해 소득 불평등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형성되는 과정을 경험적으로 제시한다. 미국은 현재 선진 산업 사회 중 소득 불평등도가 가장

1.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ISSP 2009)에 따르면 미국인 중 66.5%는 현재 미국 사회에서 소득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서구의 다른 나라에서 이 비율은 각각 영국 77.2%, 독일 89.6%, 스웨덴 73.1%이다.

높은 반면, 소득 불평등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특이한 사례이므로 소득 불평등에 관한 주관적 인식 모델을 검증하기에 유용한 사례이다.

II. 소득 불평등의 인식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소득 불평등의 인식을 구성하는 세 요소

사람들이 소득 불평등 수준이 매우 높다고 생각할 때, 이러한 인식에는 소득 불평등의 규모에 대한 사실의 인지와 더불어 그것이 지나치다는 가치 평가가 혼합되어 있다. 소득 불평등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에 관한 기존 연구는 대체로 사실 인지와 가치 평가를 구분하지 않는다(McCall, 2013; Janmaat, 2013). 이는 사람들이 소득 불평등에 관해 생각할 때 항상 감정적인 요소가 개입되기 때문이다. 소득 불평등의 규모가 크다는 사실 인식에는 그렇게 큰 불평등을 만들어 낸 소득 분배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거나 사회에 해롭다는 가치 판단이 섞여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 불평등 인식을 세 가지 요소로 구분한다. 첫째는 소득 불평등의 현 수준에 대한 사실 인식이다. 소득 불평등이라는 객관적 사회 현상에 대해 주관적인 인식의 첫 관문은 소득 불평등의 규모를 인식하는 것이다. 소득 불평등의 규모에 대한 인식은 객관적 소득 불평등 규모를 반영하지만 반드시 일대일의 관계는 아니다. 한 사회에서도 어떤 사람은 그 사회의 소득 불평등 규모를 다른 사람보다 더 크게 인식한다. 객관적인 불평등도보다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불평등도가 더 중요하다. 소득 분포를 보다 평준화해야 한다는 견해는 바로 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불평등도에 좌우되기 때문이다(Gijsberts, 2002: 272). 현재 소득 불평등 규모가 어느 정도 인지를 인식하는 것과, 소득 불평등이 지나치게 크다거나 혹은 고소득자의 소득이 부당하게 높다와 같은 가치 평가를 구분하려 한다. 소득 불평등 규모에 대한 인식과 소득 불평등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밝히는 것

이 본 분석의 핵심이다.

소득 불평등 인식의 두 번째 요소는 어느 정도의 소득 불평등이 적절한지 내지 정당한지에 대한 인식이다. 소득 불평등이 지나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소득 불평등이 적절한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기준이 없다면 지나치다 혹은 아니다 라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완전히 평등한 사회를 원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 대부분의 사람은 어느 정도의 불평등은 필요하고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당한 수준의 불평등은 사람들이 용인하는 범위의 소득 격차를 의미한다. 여기서 정당한 불평등 수준은 제소와 로시(Jasso and Rossi, 1977; Jasso, 1978)가 제시한 “정당한 임금”의 개념과 유사하다. 그들은 실제 임금과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임금간의 격차를 “정당한 분배”의 척도로 개발했는데, 이러한 격차를 모든 근로자에 대해 종합하면 정당한 불평등 수준을 구할 수 있다. 정당한 수준의 불평등이 어느 정도인가는 사람에 따라 생각이 다르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수준과 이념 성향이 정당한 불평등 수준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Kelley and Evans, 1993; Kluegel et al., 1995; Verwiebe and Wegener, 2000).

소득 불평등 인식의 세 번째 요소는 현재의 소득 불평등 수준에 대해 가치 평가를 내리는 것이다. 사람들은 현재의 소득 불평등이 지나치게 크거나 혹은 그렇지 않다고 주관적으로 평가를 내린다. 나이가 든 사람이 젊은 사람보다, 남성이 여성보다, 보수적 이념성향을 가진 사람이 진보적 이념 성향을 가진 사람보다 현재의 소득 불평등이 지나치게 크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Hardler, 2005; McCall, 2013).

사람들은 현재의 소득 불평등 규모를 크게 인식할 때, 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소득 불평등 규모에 대한 인식은 주관적인 해석을 거쳐 소득 불평등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귀착된다. 이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당한 불평등 수준은 현실에 대한 인식을 해석하는 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 불평등에 대한 가치 평가가, 소득 불평등 규모에 대한 사실 인식과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불평등 수준 간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본다. 정당한 소득 불평등 수준에 대한 견해는 소득 불평등에 대한 가치

평가에서 지렛대로 작용한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득 불평등 규모와 정당한 소득 불평등 수준을 비교하여 소득 불평등에 대한 주관적인 태도를 결정한다는 개념 모델은 하들러(Hardler, 2005)가 제시한 것과 유사하다. 그는 직업을 분석단위로 하여 개별 직업의 소득에 대한 태도를 비교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개인을 분석단위로 하여 각 개인의 불평등 인식을 분석한다. 정당한 소득 불평등 수준을 높게 설정한 사람은 같은 불평등 규모에 대해서도 이것이 지나치게 크다고 평가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 정당한 소득 불평등 수준을 낮게 설정한 사람은 불평등이 지나치게 높다고 평가할 가능성이 크다.

[가설 1]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득 불평등의 현 수준이 정당한 소득 불평등 수준보다 높으면, 소득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고 평가한다. 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득 불평등의 현 수준이 정당한 소득 불평등 수준보다 낮으면, 소득 격차가 지나치게 크지는 않다고 평가한다.

[가설 2] (가설 1로부터 도출됨). 정당한 소득 불평등 수준을 높게 설정할수록 현재의 소득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고 평가할 가능성이 낮다. 반면 정당한 소득 불평등 수준을 낮게 설정할수록 현재의 소득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비교의 지렛대가 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당한 불평등 수준은 소득 불평등에 대해 가치 판단을 하는데 중요하다. 여러 연구자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당한 불평등 수준과 현재의 소득 불평등 규모에 대한 인식이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사람들이 소득 불평등에 관해 가지고 있는 규범적인 기준은 현상에 대한 인식에 맞추어서 설정된다(Jasso and Rossi, 1977; Kelley and Evans, 1993; Shamon and Dulmer, 2014). 사회학자 호만스는 규범과 현실 인식간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Homans, 1974: 249-250). “분배 정의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하는데, 사람들이 ‘어떠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현상이 어떠한가’에 관한 인식을 시차를 두고 반영한다.” 본 연구에서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불평등에 관한 규범적 기준은 현상에 대한 인식에 맞추어 설정된다고 가정한다.

[가설 3] 현재의 소득 불평등 규모를 크게 인식할수록 더 높은 수준의 소득 불평등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2. 사회경제적 지위와 소득 불평등 인식간의 관계

사회경제적 지위는 소득 불평등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기존 연구에서는 소득 불평등 규모의 인식과 소득 불평등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두 가지 서로 다른 소득 불평등 인식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분명치 않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현재의 소득 불평등 수준을 보다 정확히 인식할 것이며, 그것은 소득 불평등 규모를 높게 인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추론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사람들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인접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 상황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잘 아는 반면, 자신의 지위와 먼 위치에 관해서는 잘 모른다(Kelley and Evans, 1993). 따라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은 자신과 근접한 상위 지위의 소득에 관해 하위 지위의 사람들보다 더 정확하게 인식할 것이다.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은 교육 수준이 높으며 일과 사회 경험을 통해 사회적으로 상위에 위치한 사람들의 소득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서 훨씬 유리하다. 미국에서 지난 삼십년간 최상위 소득자의 소득이 급속히 증가한 것이 소득 불평등을 높인 가장 큰 요인이므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소득 불평등의 현 수준을 더 정확히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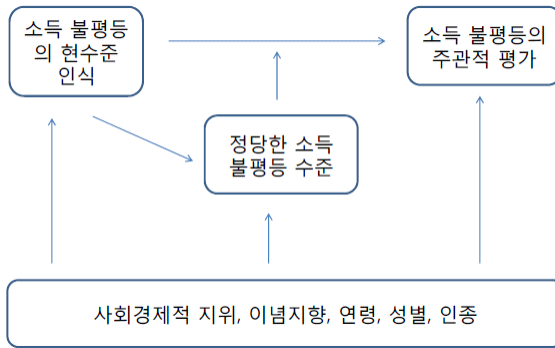
[가설 4]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은 지위가 낮은 사람보다 현재의 소득 불평등 규모를 더 크게 인식한다.

-
2. 사람들은 상위 소득자의 소득보다는 하위 소득자의 소득을 더 정확히 추정한다. 한편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사람은 하위 지위의 소득 현실을 실제보다 부풀려 추정한다(Kelley and Evans, 1993). 지난 삼십년간의 소득 불평등은 하위의 소득보다는 상위의 소득이 초점이 되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하위 지위의 소득을 과대평가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소득 불평등 인식과 관련하여 하위 지위의 낮은 소득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소득 불평등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개인의 이익이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소득 불평등에 관해 생각한다 (Alesina and Ferrara, 2005; McCall, 2013; Hayes, 2014). 지버츠(Gijsberts, 2002)는 높은 지위의 사람들은 낮은 지위의 사람들보다 높은 지위의 직업에 대해 높은 보상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을 발견했으며, 개인의 이익이 이러한 태도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원인임을 입증했다. 켈리와 에번스(Kelley and Evans, 1993)는 응답자의 지위가 높을수록 정당한 소득 규모라고 지적인 금액과 자신의 소득이 일치함을 발견했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은 지위가 낮은 사람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규모의 소득 불평등이 정당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신의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을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가설 5]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은 지위가 낮은 사람보다 더 높은 규모의 소득 불평등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소득 불평등에 대해 생각하므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은 지위가 낮은 사람보다 현재의 불평등 수준이 지나치게 크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 소득 불평등이 지나치게 크다는 견해는 소득 불평등을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을 함축하므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이익에 반한다. 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은 현재의 소득 불평등이 지나치게 크며 비교적 낮은 규모의 소득 불평등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소득 불평등 현실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이것을 변혁하는 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소득이 교육 수준보다 소득 불평등에 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하다(Kluegal and Smith, 1986; Alesina and Ferrara, 2005; McCall, 2013). 부자는 소득 불평등에 대해 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반면,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은 소득 불평등에 대해 반드시 덜 부정적이지는 않다. 그들이 고등 교육을 통해 습득한 진보적인 생각이 자신의 이익과 소득 불평등에 대한 태도가 노골적으로 연계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그림 1〉 소득 불평등 인식의 세 요소간의 관계

[가설 6]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현재의 소득 불평등이 지나치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개인의 소득이 교육 수준보다 소득 불평등에 대한 평가에 더 뚜렷하게 영향을 미친다.

개인의 이념 성향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함께 소득 불평등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Alesina and Ferrara, 2005; McCall, 2013; Hayes, 2014). 보수적인 이념 성향을 지닐수록 현재의 소득 불평등이 지나치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며 정당한 불평등 수준을 높게 설정한다. 한편 이념 성향이 불평등의 현수준에 관한 사실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분석된 바 없다. 보수적인 이념 성향을 지닌 사람이 진보 성향 사람보다 소득 불평등의 수준을 낮게 인식할 것으로 추측되지만, 소득 불평등에 대한 사실 인식이 이념적 성향에 의해 왜곡되는지 여부는 검증되지 않았다.

[가설 7] 보수적인 이념 성향을 지닐수록, 현재의 소득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정당한 불평등 수준을 높게 설정한다.

〈그림 1〉은 위의 가설 1~7을 요약하여 보여준다. 소득 불평등의 현수준을 높게 인식하면 소득 불평등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현실 인식이 소득 불평등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서 중간에 작용하

는 요인으로 정당한 불평등 수준이 있다. 정당한 소득 불평등을 어떤 수준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현 상황의 인식이 소득 불평등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낳거나 그렇지 않다. 한편 정당한 불평등 수준은 소득 불평등에 대한 현 상황 인식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한편 사회경제적 지위는 불평등 인식의 세 요소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은 소득 불평등 수준을 높게 인식하며, 정당한 불평등 수준을 높게 설정한다.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은 현재의 소득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고 평가하지 않는다. 이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소득 불평등 수준 평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측면도 있지만, 사회경제적 지위가 불평등의 현 수준 인식과 정당한 불평등 수준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다시 불평등의 평가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도 작용한다. 이념 지향, 연령, 성별, 인종은 본 연구에서 통제 변수로 포함하였다.

소득 불평등 인식의 세 범주, 즉 ‘소득 불평등의 현 수준’, ‘정당한 소득 불평등 수준’, ‘소득 불평등의 주관적 평가’가 모두 태도 변수이므로 이들 사이에 인과관계를 완벽하게 설정하기는 어렵다. 소득 불평등의 ‘현 수준’과 ‘정당한 수준’의 인식이 ‘주관적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당한 인과설정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득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고 생각하면 정당한 소득 불평등 규모를 낮추어 설정하거나 혹은 소득 불평등의 현 수준을 높게 왜곡하여 인식할 것이다. 그러나 <그림 1>에서 화살표의 역방향으로 인과적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III. 분석의 틀

소득 불평등의 주관적 인식을 구성하는 세 요소 즉, ‘소득 불평등의 현 수준’, ‘정당한 소득 불평등 수준’, ‘소득 불평등에 대한 주관적 평가’ 각각을 구분하여 조작적으로 정의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소득 불평등의 규모에 관한 언급은 감정적인 평가를 내포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소득 불평등과 관련

된 생각을 직접 묻는 방식으로는 소득 불평등의 현 수준에 대한 사실 인식과 가치 평가를 구분하기 어렵다. 소득 불평등은 전체 사회 구성원의 소득 분포의 속성을 지칭하는 개념으로서 보통 사람들은 일상에서 이러한 문제를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Gimpelson and Treisman, 2015). 예컨대 소득 불평등을 측정하는 데 흔히 사용하는 지니(Gini)계수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수리적인 개념이며, 소득 분포에서 상위 20% 사람들의 소득과 하위 20% 사람들의 소득의 비율을 구하는 것 역시 보통 사람들에게는 무척 막연한 개념이다. 소득 불평등의 현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및 정당한 소득 불평등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를 사람들에게 지니계수나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비율 등의 지표로 답하도록 해서는 신뢰할만한 정보를 구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소득 불평등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묻는 방식과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을 함께 사용한다. 소득 불평등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방식은 제소(Jasso and Rossi 1977; Jasso 1978)가 개발한 소득 불평등 척도를 사용한다. 이 척도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실제 소득과 정당한 규모의 소득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개인 혹은 대상이 되는 직업 모두에 대해 종합한 것이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여러 연구자들이 소득 불평등 척도를 개발하였다(Kelley and Evans, 1993; Kluegal, et al., 1995; Gijsberts, 2002; Hadler, 2005; Osberg and Smeeding, 2006 등).

본 연구에서는 가장 돈을 잘 버는 직업인 대기업의 최고경영자와 가장 돈을 잘 못 버는 직업인 공장의 비숙련 노동자의 소득에 관해 응답자가 구체적으로 제시한 액수를 대비하는 방식으로 소득 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측정한다. 직업은 사회에서 수행하는 역할이며 지위와 소득의 원천으로서 소득 불평등의 토대이다. 일반인의 상식에서 이 두 직업은 소득은 물론 사회적 지위에서 최고와 최저를 상징적으로 대표한다. 이 두 직업이 제공하는 금전적 보상에 대한 견해는 소득 불평등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 사람들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측정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이 방법은 사람들에게 소득 불평등에 관해 직접적으로 묻지 않고서도 그들이 생각하는 소득 불평등 정도에 관해 수

량화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소득 불평등의 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대기업의 최고 경영자와 공장의 비숙련 노동자라는 두 가지 직업에 대해 “이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세전 소득으로 일 년에 얼마를 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가 제시한 소득 금액을 비교한다. 응답자가 생각하기에 대기업의 최고 경영자와 공장의 비숙련 노동자의 소득 차이가 클수록 소득 불평등이 크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소득 불평등의 현 수준 = $\ln(\text{최고 경영자의 소득} / \text{비숙련 노동자의 소득})$.

여기서 자연 로그를 취한 이유는 사람들의 소득 격차에 대한 생각이 선형적인 비율보다는 자연 로그의 수리적 특성에 더 부합하기 때문이다. 자연 로그 함수는 로그를 취하는 값이 1보다 클 때에는 양(+)의 값을 갖는데 이 수치에 근접할수록 급격히 변화하는 반면 이것에서 멀어질수록 체감한다. 사람들은 소득의 큰 차이보다 소득의 작은 차이에 더 민감하며, 소득이 많을수록 효용이 체감하기 때문에 로그 함수의 속성은 소득 격차에 관한 사람들의 태도를 보다 잘 반영한다(Jasso, 1978; Kelley and Evans, 1993).

같은 방식으로 ‘정당한 소득 불평등 수준’은 대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얼마를 버는 것이 정당한 보상일지 응답자가 제시한 액수와 공장의 비숙련 노동자의 정당한 소득 액수의 비율에 자연 로그를 취한 값으로 한다. 구체적인 문항은 “이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세전 소득으로 일 년에 얼마를 벌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실제 버는 소득 금액과는 무관하게 생각하십시오.” 대기업의 최고경영자와 공장의 비숙련 노동자 각각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금액은 대체로 그 사회에서 도덕적으로 허용하는 소득의 최고치와 최소치에 근접할 것이다.

정당한 소득 불평등 수준 = $\ln(\text{최고경영자의 정당한 소득} / \text{비숙련 노동자의 정당한 소득})$.

‘소득 불평등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직접적인 방식으로 측정한다. ‘소득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라는 설문 문항에 대해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4점 척도로 측정한다.³ 이 변수는 값이 클수록 현재의 소득 불평등이 지나치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소득 불평등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경제적 지위는 교육 수준과 가구 소득으로 측정하였다. 교육 수준은 초등학교 졸업(1)에서 대학졸업 이상(5)까지 다섯 개의 범주로 측정하였다. 가구 소득은 가구 규모에 따른 복지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가구 규모의 제곱근으로 나눈 뒤 분포에서 표준점수(Z-값)를 구하여 사용하였다.⁴ 기존 연구에서 소득 불평등의 주관적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경제적 지위 이외에 이념 성향, 연령, 성별 등이 있다. 이 요인들은 본 분석에서 통제 변수로 포함되었다. 이념 성향은 매우 진보(1)에서 매우 보수(5)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한다. 기존 연구에서 인종은 소득 불평등의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미국 사회에서 인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통제 변수로 포함시켰다. 인종 변수는 백인, 흑인, 히스패닉, 아시안/기타의 네 범주로 나누고 백인을 준거 집단으로 하는 더미변수로 처리한다.

앞의 <그림 1>의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일련의 회귀분석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소득 불평등의 주관적 인식의 세 가지 요소, 즉 '소득 불평등의 현 수준', '정당한 소득 불평등 수준', '소득 불평등의 주관적 평가'를 각각 종속 변수로 하는 회귀 분석을 실시한다. 또한 소득 불평등의 주관적 평가를 종속 변수로 하고 나머지 두 개의 소득 불평등 인식 변수가 순차적으로 설명변수로 투입되는 회귀 분석을 통해 변수들 서로 간의 영향력을 확인한다. 회귀분석에서 나타난 사회경제적 지위가 불평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뚜렷이 확인하기 위해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 불평등 인식을 비교한다. 여기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소득 분포에서 각각 상위 20%와 하위 20%에 속하는 사람들로 정의한다.

-
3. 이 문항은 원래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그러나 '매우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 두 응답지를 선택한 사람들이 전체의 9.8%에 불과하여 두 응답지를 하나로 합하였다.
 4. 가구 소득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소득 위계에서 차지하는 자신의 위치에 따라 소득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기 위해 소득 위계에서 자신의 상대위치를 보다 정확히 표현하는 개념인 표준점수(Z-값)를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불평등을 주제로 하여 설계된 조사 자료인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ject)의 ‘불평등 모듈’(Inequality Module)을 사용한다.⁵ 국제적인 협력 사업으로 조직된 이 프로젝트는 1980년에 독일과 미국을 시작으로 하여 각 나라에서 독립적으로 전개되는 사회조사를 상호 호환이 가능하도록 조직하는 노력 속에서 현재 53개국으로 범위가 넓어졌으며 매년 주제를 바꾸어가면서 조사 결과를 축적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 조사에서 ‘불평등 모듈’은 1987, 1992, 1999, 2009년의 네 차례 수행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의 조사 자료를 사용한다. 미국에서는 시카고 대학에서 격년으로 실시하는 General Social Survey의 일환으로 2010년에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 대상은 18세 이상 성인으로 표본 수는 1,581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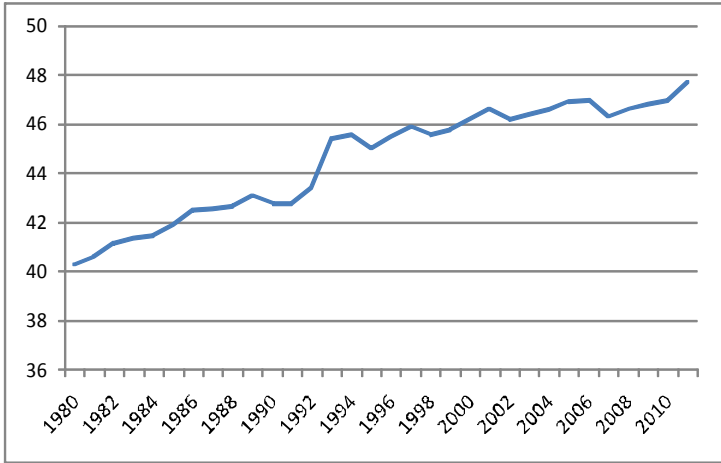
IV. 분석 결과

1. 소득 불평등의 주관적 인식의 변화

미국은 1970년대 후반 이래 근래에 이르기까지 소득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림 2>에서 1980~2011년 사이에 시기에 따라 다소간 진폭이 있지만 소득 불평등이 일관되게 확대된 것을 확인한다. 소득 불평등이 확대 속도는 1980년대가 가장 빠르며 1990년대 중반 클린턴 행정부 시기에 속도가 둔화되고, 2000년대에 들어 다시 속도가 빨라지다가 2008년 경제위기로 일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지난 삼십여 년간 불평등이 확대된 것은 최상위 소득자의 소득이 급증한 것이 주원인이다. 이 기간 동안 남성 근로자의 실질 임금은 하락하였으며 평균 가구 소득 역시 미미하게 증가하였다. 반면 소득 분포에서 최고 1%에 속하는 사람의 소득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최고 1%의 가구는 1979년 전체 세전 소득의 8.9%를 차지하던 것이 2012년에는 22.4%로 세 배 가까이 증가

5. ISSP 조사 자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http://www.gesis.org/en/issp/issp-home/> 참조.



출처: OECD(2015), Income inequality(indicator). doi: 10.1787/459aa7f1-en, <https://data.oecd.org/inequality/income-inequality.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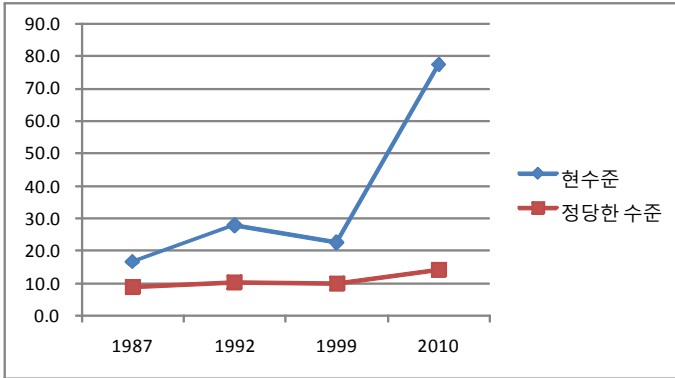
주: 세로축은 가구의 규모에 따라 조정된 가구 가치분소득으로 계산한 지니계수임. 완전히 평등한 상태(0)에서 완전히 불평등한 상태(100)의 분포.

〈그림 2〉 소득 불평등 수준의 변화(1974~2011)

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소득 분포의 하위 20% 사람들의 실질 소득은 12.1%나 감소하였다(Institute for Policy Studies, 2015).

〈그림 3〉은 소득 불평등의 현 수준과 정당한 소득 불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보여준다. 2000년대에 들어 소득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이전 시기에 비해 두드러진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불평등의 현 수준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소득 불평등 수준 또한 높아졌다. 소득 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객관적인 소득 불평등의 변화에 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1980~90년대에 불평등이 증가하였으나 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2000년대에 들어 급격히 높아졌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불평등 인식에서 시간지체 현상, 즉 불평등의 현실이 바뀌고 난 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인식이 뒤따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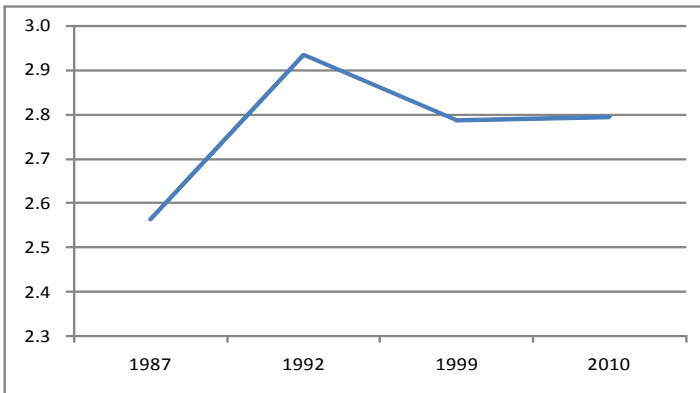
〈그림 3〉에서 두 그래프를 비교하면 소득 불평등의 현 수준이 높아지면 정당한 불평등 수준 또한 높아지지만 두 인식 범주의 변화 속도에 차이가 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득 불평등의 현 수준이 높아지는 속도가 정당한 불



출처: ISSP 각 연도 자료.

주: 세로축은 비숙련 노동자에 대비한 최고 경영자의 소득의 배율임.

〈그림 3〉 소득 불평등 인식의 변화(1987~2010)



출처: ISSP 각 연도 자료.

주: 세로축은 “소득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는 질문에 대해 ‘1. 아니다, ~ 4. 매우 그렇다’의 응답임.

〈그림 4〉 소득 불평등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변화(1987~2010)

평등 수준이 높아지는 속도를 훨씬 상회한다. 최고경영자와 비숙련 노동자의 소득 비율로 측정된 불평등 인식 척도에서 2010년의 불평등이 1999년보다 2.41배 크다고 인식하였으나 정당한 수준의 불평등은 이 기간 동안 1.33배 증가에 머물렀다.

〈그림 4〉는 “소득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라는 설문 문항으로 소득 불평등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측정한 것이다. 1987~2010년의 기간 동안 소득 불평등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높아지기는 하였지만, 이 기간 동안 객관적 불평등 수준이 크게 높아졌음에도 전반적으로 불평등 인식은 그리 높지 않다. 소득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는 주장에 대해 약하게 긍정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미국인은 1992년의 조사 이후 소득 불평등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오히려 감소하였다. 미국은 높은 불평등 수준에 비해 사람들이 대체로 소득 불평등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기존의 여론 조사에서 거듭 확인된다.

객관적인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었음에도 주관적인 평가는 정체되거나 혹은 오히려 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소득 불평등 및 고위직의 보상에 대한 미국인의 평가는 자신의 소득 수준에 따라 크게 다르며 논리적으로 일관되지 않다(Glazer, 2005; 이현송, 2015). 호시차일드에 따르면 미국인의 소득 불평등에 관한 내면의 생각은 외적으로 제시하는 의견보다 복잡하다(Hochschild, 1981). 미국에서는 누구라도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으므로 결과로서의 불평등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다수가 동의한다. 그러나 그녀의 관찰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소득 불평등에 대해 언급할 때 자신의 발언 내에서도 일관성이 결여되며, 감정적으로 분노, 혼돈, 무기력의 징후를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득 불평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직접적으로 물었을 때 애매하게 답변할 가능성이 크다.

2. 소득 불평등의 주관적 인식을 설명하는 모델

〈표 1〉에서 변수들 간에 상관관계를 보면 소득 불평등 인식의 세 요소 사이의 관계는 앞의 가설들과 부합한다. 소득 불평등의 현 수준은 정당한 불평등 수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r=.604$). 소득 불평등의 현 수준을 높게 인식할수록 더 높은 수준의 소득 불평등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최고위와 최하위 직업의 소득 비율로 측정된 두 개의 불평등 인식 수치가 높은

상관도를 보이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것이다. 첫째 이유는 [가설 3]에서 제시하였듯이 최고위와 최하위 직업이 실제 얼마를 번다고 생각하는지에 맞추어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 소득 규모를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이다. 둘째 이유는 사람들이 최고위 및 최하위 직업의 현 소득과 정당한 소득을 추정할 때, 둘 다 자신의 현재 상황과 크게 관련이 없기 때문에 대강의 수치를 제시하다 보니 현 소득에 대한 추정액과 정당한 소득에 대한 추정액이 함께 가는 경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는 척도의 타당성을 약화시키는 요소이다.

소득 불평등의 현 수준을 높게 인식할수록 소득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는 데 동의한다($r=.095$). 정당한 소득 불평등 수준과 소득 불평등에 대한 평가는 반비례 관계이다($r=-.065$). 즉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소득 불평등 수준이 높을수록 소득 격차가 지나치다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한편 소득 불평등의 현 수준과 정당한 불평등 수준 사이의 간격이 클수록 소득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는 데 동의한다($r=.136$). 흥미로운 점은 소득 불평등의 현 수준과 정당한 불평등 수준간의 비율은 전자보다는 후자와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다($r=.209, -.531$). 이는 소득 불평등에 대한 사실 인식보다는 정당한 불평등 수준에 대한 견해가 소득 불평등 인식에서 더 중요함을 시사한다.

소득이 클수록 소득 불평등의 현 수준을 높게 인식하며($r=.255$), 정당한 소득 불평등 수준을 높게 설정하며($r=.282$), 소득 격차가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r=-.055$).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 불평등의 현 수준을 높게 인식하며, 정당한 소득 불평등 수준을 높게 설정한다는 면에서 소득과 교육의 효과는 유사하다. 그러나 교육 수준은 소득 격차에 대한 평가와 관련이 없다. 즉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소득 격차가 지나치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예상대로 보수적일수록 현재의 불평등 수준이나 정당한 불평등 수준을 진보적인 사람보다 높게 인식하는 반면($r=.092, .125$), 소득 격차에 대해서는 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r=-.191$). 여성보다 남성이, 연령이 많을수록 현재의 소득 불평등 수준이나 정당한 불평등 수준을 높게 인식하는 반면 소득 격차에 대해서는 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표 1〉 소득 불평등의 인식 요소들 간의 상관관계

	정당한 수준 (B)	주관적 평가	현수준 대 정당한 수준 (A/B)	소득	교육	여성	연령	이념성향	흑인	히스패닉
현 수준 (A)	.604**	.095**	.209**	.255**	.233**	-.169**	.223**	.092**	-.145**	-.112**
정당한 수준 (B)	1.0	-.065*	-.531**	-.282**	.201**	-.195**	.199**	.125**	-.079**	-.081**
주관적 평가		1.0	.136**	-.055**	.036	.029	.073**	-.191**	-.028	.002
현수준 대 정당한 수준 (A/B)			1.0	-.102**	-.083**	.050	-.024	-.069*	-.017	-.034
소득				1.0	.422**	-.118**	.089**	.128**	-.148**	-.163**
교육					1.0	-.015	-.124**	.051*	-.089**	-.187**
여성						1.0	.008	-.040	.017	.016
연령							1.0	.009	-.113**	-.156**
이념성향								1.0	-.248**	-.139**
흑인									1.0	-.120**

출처: ISSP 2009 원자료, n=1,581

주: 흑인과 히스패닉은 더미 변수로서 준거기준은 백인임, 아시아인 더미변수의 결과는 생략함.
 **는 p<0.01에서, *는 p<0.05에서 유의미함.

‘소득 불평등의 현 수준’, ‘정당한 소득 불평등 수준’, ‘소득 불평등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각각에 대하여 앞 절의 〈그림 1〉의 인과 모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과 모형의 가장 첫 단계인 ‘소득 불평등의 현 수준’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 분석 결과가 〈표 2〉의 [모델 1]이다. 남성이 여성보다 불평등의 현 수준을 높게 인식하며 연령이 높을수록 현 수준을 높게 인식한다. 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연령이 많을수록 사회 경험이 많기 때문에 불평등의 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득과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불평등의 현 수준을 높게 인식한다. 이는 소득과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고위직의 소득에 대해 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흑인은 백인보다 현재의 소득 불평등 수준을 낮게 인식한다. 흑인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백인보다 낮고 차별을 당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들은 백인보다 현재의 소득 불평등이 높다고 생각할 것 같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사회경제적 지위를 통제했을 때 흑인이 백인보다 소득 불평등을 낮게 인식하

〈표 2〉 소득 불평등의 인식에 대한 회귀분석

	모델 1	모델 2	모델 2a	모델 3	모델 3a	모델 3b	모델 3c
여성	-.475** (-6.43)	-.321** (-5.59)	-.147 (-2.99)	.059 (1.06)	.107 (1.85)	.087 (1.50)	.122* (2.11)
연령	.022** (9.32)	.012** (6.37)	.003 (1.76)	.004** (2.52)	.003 (1.46)	.007** (3.69)	.007** (3.57)
흑인	-.432** (-3.25)	.070 (.68)	.267** (3.09)	-.215** (-2.13)	-.262** (-2.54)	-.299** (-2.94)	-.220* (-2.12)
히스패닉	-.101 (-.78)	.087 (.87)	.153 (1.81)	-.054 (-.56)	-.067 (-.67)	-.111 (-1.11)	-.062 (-.61)
아시아인	-.145 (-.93)	-.148 (-1.21)	-.050 (-.48)	.051 (.43)	.131 (1.09)	.119 (.98)	.127 (1.02)
이념성향	.048 (.96)	.132** (3.39)	.110** (3.32)	-.302** (-8.00)	-.340** (-8.84)	-.337** (-8.57)	-.320** (-8.11)
소득	.159** (3.73)	.231** (6.94)	.164** (5.84)	-.085** (-2.64)	-.108** (-3.28)	-.071* (-2.11)	-.062 (-1.82)
교육	.292** (7.43)	.150** (4.91)	.037 (1.41)	.058* (1.98)	.041 (1.33)	.077* (2.50)	.066* (2.10)
현 수준 (A)			.413** (22.73)		.075** (3.54)		
정당한 불평등 (B)						-0.061* (-2.18)	
현 수준 대 정당한 불평등 (A/B)							.122** (4.51)
R2	0.181	0.155	0.406	0.06	0.083	0.083	0.097
N	1,317	1,271	1,252	1,378	1,292	1,249	1,191

주: 1) 모델 1, 2, 3은 각각 '소득 불평등의 현 수준,' '정당한 소득 불평등 수준,' '소득 불평등의 평가'를 종속 변수로 한 회귀분석임.

2) 괄호는 t-value, *, p<0.05, **, p<0.01 에서 유의미함.

는 이유는 분명치 않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인종은 소득 불평등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McCall, 2013; Hayes, 2014).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단순히 소수 인종이라는 사실만으로 소득 불평등의 현실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이다. 한편 이념 성향은 소득 불평등의 현 수준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진보적인지 혹은 보수적인지 여부가 현재 소득 불평등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데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 이념 성향이 소득 불평등에 대한 가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현재의 상태를 인식하는 데에 외곡을 초래하지는 않는 것이다. 즉

소득 불평등의 현 수준이 어떠하다는 사실 인식은 이념 성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모델 2]는 '정당한 소득 불평등 수준'을 종속 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로서 '소득 불평등의 현 수준'을 종속변수로 한 [모델 1]과 대체로 비슷한 결과를 보인다. 즉 남성이 여성보다, 연령이 높을수록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소득 불평등 수준이 높다. 보수적 성향을 보일수록, 소득과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정당한 소득 불평등 수준'을 높게 설정한다.

[모델 2]와 이것에 '소득 불평등의 현 수준'을 설명변수로 추가한 [모델 2a]를 비교하였을 때 두 가지 주목할 점을 발견한다. 첫째는 '소득 불평등의 현 수준'은 '정당한 소득 불평등 수준'에 비례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회귀계수의 유의미도가 매우 높다는 점이다($B=.413$, $t=22.73$). 현재의 소득 불평등 수준을 1% 높게 인식하면 정당한 불평등 수준을 0.413% 높게 설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⁶ 이는 달리 말하면, 대기업 최고 경영자의 소득과 공장에 비속련 노동자의 소득 사이의 격차가 1% 더 크다고 인식하면, 그는 대기업 최고 경영자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소득과 공장 비속련 노동자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소득 사이의 격차를 0.413% 더 높게 설정하는 것이다. 이는 [가설 3], '현실의 소득 불평등 수준을 높게 인식할수록 더 높은 수준의 소득 불평등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를 지지한다. 둘째는 '소득 불평등의 현 수준'이 설명 요인으로 추가됨으로서 모델의 설명력이 크게 증가하였다($R^2=0.155$ 에서 0.406 으로). 이 두 모델의 설명력의 차이(0.251)는 '정당한 소득 불평등 수준'의 총 변량의 25.1%를 '소득 불평등의 현 수준'이 설명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당한 소득 불평등 수준'은 '소득 불평등의 현 수준'에 대한 인식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것이다.

소득 불평등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종속변수로 사용한 회귀분석 결과는 [모델 3]이다. 연령이 높을수록, 진보적인 이념 성향을 보일수록 소득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흥미로운 점은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소득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나, 교육 수준이 높으면 소

6.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모두 자연로그를 취하면,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계수는 탄력성의 개념으로 해석된다.

득 격차에 대해 반대의 태도를 갖는다는 사실이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소득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게 소득 불평등에 대한 태도를 형성한다는 명제는 소득 수준에 대해서는 타당하지만, 교육 수준에 대해서는 반드시 타당하지는 않은 것 같다.

[모델 3]에 '소득 불평등의 현 수준'을 설명변수로 추가한 것이 [모델 3a]이며, '정당한 소득 불평등 수준'을 설명변수로 추가한 것이 [모델 3b]이다. 예상대로 현재의 소득 불평등 수준을 높게 인식할수록 소득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고 생각하며, 반면 '정당한 소득 불평등 수준'을 높게 설정할수록 소득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소득 불평등의 현 수준'에 '정당한 소득 불평등 수준'을 나눈 설명 변수를 추가한 [모델 3c]가 가장 설명력이 높다($R^2=0.097$). 이는 소득 격차가 지나친지 여부에 관한 태도는 본인이 생각하는 소득 불평등의 현 수준과 정당한 소득 불평등 수준을 비교하여 결정되기 때문이다. 즉 소득 불평등의 현 수준이 정당한 소득 불평등 수준보다 크게 높다면 소득 격차가 지나친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는 [가설 1]과 [가설 2], 즉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득 불평등의 현 수준이 정당한 소득 불평등 수준보다 높으면, 소득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고 평가한다'와 부합한다. 사회 경제적 지위, 이념 성향, 인구학적 특성은 소득 불평등의 평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현재의 소득 불평등 수준과 정당한 불평등 수준을 인식하는데 영향을 주고, 이것이 소득 불평등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식으로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

이 결과로 볼 때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은 현재의 소득 불평등 수준을 높게 인식함에도 소득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소득 불평등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소득 수준에 대한 사실인식 못지않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소득 불평등을 어느 수준으로 설정하는가에 좌우된다. 만일 소득이 높은 사람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소득 불평등 수준이 높다면, 아무리 현재의 소득 불평등이 높다고 생각해도 소득 격차가 지나치게 높다고 평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점을 보다 분명히 확인하기 위해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서 소득 불평등의 인식 차이를 비교해 보았다. <표 4>에서 상위 20% 내에 드는 부자들

〈표 4〉 부자와 빈자 간에 ‘소득 불평등의 현 수준’과 ‘정당한 소득 불평등 수준’의 대비

소득 수준에 따른 집단 구분			
	부자	중간층	빈자
소득 불평등의 현수준 (A)	96.5	78.6	49.5
정당한 불평등 수준 (B)	19.7	14.3	9.6
정당한 불평등과 현수준의 비율 (B/A)	20.4%	18.1%	19.3%
소득 불평등의 평가	2.66	2.87	2.76
교육 수준에 따른 집단 구분			
	대학 졸업 이상	고등학교 졸업	고졸 미만
소득 불평등의 현수준 (A)	101.7	70.2	49.1
정당한 불평등 수준 (B)	18.3	12.9	10.3
정당한 불평등과 현수준의 비율 (B/A)	17.9%	18.3%	20.9%
소득 불평등의 평가	2.84	2.79	2.68

주: 부자, 중간층, 빈자의 구분은 소득 분포에서 상위 20%, 중간 60%, 하위 2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은 다른 사람보다 소득 불평등을 높게 인식한다. 부자들은 대기업 최고 경영자의 소득이 공장의 비숙련 노동자의 소득보다 96.5배나 높다고 인식한다. 그러나 그들은 소득 격차에 대해 가장 덜 부정적이다(2.66). 부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정당한 불평등 수준을 높게 설정한다. 부자들은 대기업 최고 경영자의 소득이 공장의 비숙련 노동자의 소득보다 19.7배는 되어야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정당한 불평등 수준을 현재의 불평등 수준과 비교 하였을 때 부자들은 다른 사람보다 높다(20.4%). 이러한 비교는 부자들이 다른 사람보다 소득 불평등을 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그들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소득 불평등 수준을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하였기 때문임을 확인한다.

교육 수준에 따라 구분하였을 때,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현재의 소득 불평등을 높게 인식하고 정당한 불평등 수준을 높게 설정한다는 면에서는 부자의 경우와 동일하다(101.7, 18.3). 그러나 부자와는 달리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소득 불평등에 대해 더 부정적이다(2.84). 대학을 나온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소득 불평등에 대해 비판적인 이유는, 그들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소득 불평등 수준이 그들이 인식하는 현재의 불평

등 수준과 비교하여 낮기 때문이다(17.9%). 이 비율이 부자의 경우보다 낮은 이유는 두 가지로 추정된다. 하나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부자보다 불평등의 현실에 대해 습득할 수 있는 정보가 많다는 점이다. 현재 미국에서 대기업 최고경영자의 보수는 근로자 평균 임금의 200배를 넘어서므로 교육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이러한 현실을 부자보다 더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고등 교육을 받으면서 습득한 진보적인 사고가 소득 불평등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설정한 정당한 불평등 수준이 부자가 설정한 정당한 불평등 수준보다 높다는 것이 그 증거이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인해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은 부자보다 현재의 불평등 수준을 더 높게 인식하는 반면, 정당한 불평등 수준은 낮게 설정한다.

V. 요약 및 결론

지난 삼십여 년간 미국 사회에서 소득 불평등이 증가하면서 ‘소득 불평등이 지나치게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소득 불평등에 대한 이러한 주관적 평가가 이루어지는 내적인 과정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소득 불평등의 인식을 구성하는 세 요소로 구분하였다. ‘소득 불평등의 현 수준’, ‘정당한 소득 불평등의 수준’, ‘소득 불평등의 주관적 평가’가 그것이다. 이는 과거의 연구가 소득 불평등의 인식이라고 할 때 ‘소득 불평등의 주관적 평가’에 주로 치우친 것과 대비된다.

‘소득 불평등의 주관적 평가’는 ‘소득 불평등의 현 수준’과 ‘정당한 소득 불평등 수준’의 대비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였다. 즉 한 사람이 인식하는 ‘소득 불평등의 현 수준’이 그가 생각하는 ‘정당한 소득 불평등 수준’보다 크게 높을 경우 현재의 ‘소득 불평등이 지나치게 크다’고 평가할 것이며, 반대의 경우 소득 불평등이 지나치게 크지 않다고 평가할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분석을 통해 지지되었다. 응답자가 인식하는 ‘소득 불평등의 현 수준’이 ‘소득

불평등이 지나치게 크다'고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데, 이러한 과정에서 그가 생각하는 '정당한 소득 불평등 수준'이 지렛대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즉 그가 생각하는 '정당한 소득 불평등 수준'이 높다면 같은 '소득 불평등의 현 수준'에 대해서도 다른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본 연구의 또 다른 초점은 이러한 소득 불평등의 주관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 것이었다.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사회경제적 지위를 제시하였다. 이는 개인의 이익에 따라 소득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좌우된다는 이론을 배경으로 한 것이다. 이 이론에 따라 구성된 가설들은 분석에서 지지되었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소득 불평등의 현 수준'을 높게 인식하며, '정당한 소득 불평등 수준' 또한 높게 설정한다. 본 연구의 불평등 인식 모델을 적용하여 부자와 빈자의 소득 불평등 인식을 비교해 본 결과, 부자들이 현재의 소득 불평등 수준이 높다고 인식함에도 소득 불평등에 대해 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그들이 생각하는 정당한 소득 불평등 수준이 다른 사람들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제기한 또 다른 문제는 소득 불평등 인식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인의 소득 불평등에 관한 인식은 논리적으로 일관되지 않고 감정적인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민감한 주제이다. 따라서 소득 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직접적으로 질문하여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최고위와 최하위 직업의 정당한 소득과 실제 소득을 비교하여 소득 불평등 인식의 척도를 만들었다. 소득 불평등 인식을 구성 요소로 분해하고 이들에 대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측정할 척도들을 적용하여 소득 불평등의 인식 과정을 분석한 본 연구는 소득 불평등 인식의 복합성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참고문헌

- 이현송. 2015. 「미국 사회에서 소득 불평등에 관한 인식의 격차」. 『국제지역연구』 19권 2호: 143-168.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 Alesina, Alberto and Eliana La Ferrara. 2005. "Preferences for Redistribution in the Land of Opportunitie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9(5-6): 897-931.
- Gijsberts, Merove. 2002. "The Legitimation of Income Inequality in State-socialist and Market Societies." *Acta Sociologica*, 45(4): 269-85.
- Gimpelson, Vladimir and Daniel Treisman. 2015. "Misperceiving Inequality." IZA Discussion Paper No.9100.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bor.
- Glazer, Nathan. 2005. "Why Americans Don't Care About Income Inequality." *Irish Journal of Sociology*, 14(1): 5-12.
- Hadler, Markus. 2005. "Why Do People Accept Different Income Ratios? A Multi-Level Comparison of Thirty Countries." *Acta Sociologica*, 48(2): 131-154.
- Hayes, Thomas J. 2014. "Do Citizens Link Attitudes with Preferences? Economic Inequality and Government Spending in the "New Gilded Age."" *Social Science Quarterly*, 95(2): 468-485.
- Hochschild, Jennifer L. 1981. *What's Fair: American Beliefs about Distributive Justic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Homans, George. C. 1974. *Social Behavior: Its Elementary Forms*. New York: Harcourt Brace.
- Janmaat, Jan Germen. 2013. "Subjective Inequality: a Review of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ies on People's Views about Inequality." *European Journal of Sociology*, 54(3): 357-389.
- Jasso, Guillermina. 1978. "On the Justice of Earnings: A New Specification of the Justice Evaluation Func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3(6): 1398-1419.
- _____, and Peter H. Rossi. 1977. "Distributive Justice and Earned Incom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2(4): 639-651.
- Kelly, Jonathan and M.D.R. Evans. 1993. "The Legitimation of Inequality: Occupational Earnings in Nine Nation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9(1): 75-125.
- Kluegel, James R. and Elliott R. Smith. 1986. *Beliefs about Inequality: Americans' Views of What Is and What Ought to Be*. New York: Aldine de Gruyter.
- _____, D.S. Mason, and B. Wegener (eds.). 1995. *Social Justice and Political Change: Public Opinion in Capitalism and Post-communist States*. New York: De Gruyter.
- McCall, Leslie. 2013. *The Undeserving Rich: American Beliefs about Inequality*,

- Opportunity, and Redistribution*. Cambridge, M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sberg, Lars and Timothy Smeeding. 2006. "'Fair' Inequality? Attitudes towards Pay Differentials: The United States in Comparative Perspectiv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1(3): 450-473.
- Shamon, Hawal and Hermann Dulmer. 2014. "Raising the Question on 'Who Should Get What' Again: On the Importance of Ideal and Existential Standards." *Social Justice Research*, 27: 340-368.
- Verwiebe, Roland and Bernd Wegener. 2000. "Social Inequality and the Perceived Income Justice Gap." *Social Justice Research*, 13: 123-149.

Subjective Evaluation of Income Inequality in American Society

Hyun-Song Lee

Professo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attitudes towards income inequality partly result from a rational calculation based on reality perception, in which self-interest intervenes. A conceptual framework is proposed in which income inequality is subjectively evaluated through a comparison of perceived inequality and legitimate inequality. Perceived inequality leads to either negative or less negative evaluation depending on the level of inequality that a subject thinks is legitimate. Those of high socioeconomic status perceive income inequality as larger, set legitimate inequality at a higher level, and evaluate inequality less negatively than do those of low status. Legitimate inequality set at a higher level relative to perceived inequality is the reason the rich evaluate inequality less negatively than do the poor, though the rich recognize the unequal reality more accurately than do the poor.

Keywords: Inequality perception, Inequality attitude, income inequality, distributive justice

